이름들의 각축장에서 예수이름 전적은?

(히2:1~4)

1.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2.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3.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4.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이름들의 각축장에서 예수이름 전적은?>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이름들의 각축장이 있습니다.
서로 이기려고 다투는 싸움판이 있는데, 이름들이 서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 각축장에서 예수이름은 몇 전 몇 승 몇 패냐 이겁니다.
한일축구 역대 전적을 여러분 아십니까?
1954년부터 시작 했는데, 작년 2013년도 7월28일 경기까지를 치면 40승 22무 14패입니다.
압도적으로 우리가 이겼죠?
근데 문제는 1993년 이후로는 이 일본의 축구가 아주 급격하게 실력이 상승해서 박빙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아~참 비유니까… 실제는 한국이 백전백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 이름이 맨 처음 믿음의 초장기에는, 다른 이름들에게 계속 져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는 일본 축구가 점점 더 실력이 향상돼서, 요즘은 박빙의 전적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들과의 싸움에서 박빙을 이루는 단계까지 오고, 그 다음에 더 발전해 가지고 나중에는 백전백승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그게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름들이 싸우는 각축장 이 싸움판, 종합격투기를 하는 UFC의 싸움판이 옥타곤 아닙니까? 그런 곳과 같은 이 이름들의 싸움판이 어디입니까?
바로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찾아보시면.
그 중에서 한 예를 한 번 들어보면, 예수님의 이름과 연관된 구절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자, 날 때부터 앉은뱅이가 40년 동안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자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솔로몬 행각에 모셔 두고는 경배하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지 말라 하면서 한 얘기가 같은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은 예수이름 아닙니까?
예수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날 때부터 앉은뱅이로 태어나서 40년을 앉은뱅이로 살고 있던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거예요.
아! 참~! 도대체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입으로 말하는 예수이름과 우리가 말하는 예수이름이 뭐가 다른 겁니까?

어제께 우리가 나눈 말씀의 맥락으로 얘기를 하자면,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이름 안에는, 그 예수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존재의 무게가 실린 이름이고, 우리에게는 그런 존재의 무게가 실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제목의 맥락에서 말을 하자면, 베드로가 말하는 이 예수 이름은 무패 행진의 승리를 이어가고 있는 이름입니다마는, 우리에게 베드로가 예수이름을 말할 때처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 꼭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이 아니라도, 돈 문제가 마음에 턱 하니 자리 잡을 때, 예수님~! 한 번 예수님 이름 딱~ 한 번 얘기하면, 돈 문제가 턱~하고 야구 방망이로 공쳐서 담장 너머로 날아가듯이 좀 물리쳐질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이 묵직해 가지고, 돈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훨씬 예수님 이름이 강력하기 때문에, 예수님~ 하고 부르면 그냥 돈 문제가 턱~하니 없어지고, 자식문제가 생기고 건강 걱정 되다가도 예수님~한 번 부르면 딱 없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우리 마음에, 이 싸움판에서 다른 이름들에게 지금 지고 있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떤 선 이해냐 하면, 마음과 이름의 관계입니다.
마음과 이름들은 어떤 상관관계에 있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가족을 대한다고 할 때, 우리 마음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이 사람을 대하고 관계를 맺을 때, 절대로 직접 존재를 관계하지 못합니다.
단지, 마음속에 그 존재를 가리키는 이름을 집어넣고, 내 마음은 그 이름과 관계를 하는 거예요, 실제 존재와 관계를 하지 못하고.

자! 나와 함께 사는 여자가 있다.
그 여자를 뭐라고 이름을 사람들은 지어놨습니까? 아내라고 그럽니다, 아내.
아내라는 이름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아내라는 이름과 관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단지 그 아내라는 이름에다가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5감관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나의 판단과 평가를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아내라는 이름에 옷을 입혀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는, 내 아내는 이런 여자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아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그 여자의 실제 존재는, 내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아내라는 이름의 옷 입혀 놓은 그 모양과 다를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겁니다, 서로 착각하고 있는 거니까.
자식도 마찬가지에요.
부부가 낳은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자식이라고 이름 지어놨어요.
그 자식이라는 이름을 마음속에 집어넣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평가하면서, 그 자식이라는 이름에다가 옷을 입혀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자식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그 실제 존재는 완전히 다른 존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깜짝 놀랍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찰서에서 왜 연락이? 아 아무개 부모님 되시죠? 예, 그런대요? 아 영철 군이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 우리애가 그럴 애가 아닌데요, 딴 사람인가요? 김영철 몇 세 생년월일이 언제인데, 우리 애 맞는대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이렇게 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속는 일이 있고 속이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요걸 이용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
어느 회사가 상품을 만들어 내면 그 상품의 이름을 지어 가지고는, 그 이름을 사람들 마음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에 미사여구를 붙여서 부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기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름이 이긴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름이 이긴다, 어떻게 하는 게 이름이 이기는 겁니까?
결국 우리 마음 판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게 이름이 각축장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많이 뺏는 게).
후궁이 20명이 있다면 임금님 앞에서 후궁들의 싸움이 뭡니까?
임금님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들어온 이름들, 우리들은 절대로 존재를 들여 놓을 수가 없어요, 존재 그 자체를 마음 안으로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다 그러면, 태양을 어떻게 우리 마음에 들여 놓습니까? 하늘에 떠 있는 뜨거운 불덩어리라는 걸 이름을 짓기를 태양이라고 해놓고 그 태양이라는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란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없으면 춥고 있으면 따뜻하다, 이런 생각의 옷을 입혀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들어와 있으면서,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것 이게 바로 이름들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누가 마음을 많이 빼앗느냐고 하는 이 싸움판에서, 내 마음을 많이 뺏어서 내가 내 마음을 어떤 이름에 잔뜩 줬다고 해도,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내가 생각했던 만큼 진실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훌륭하지도 않고, 지속적이지도 않을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무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마음속에 나를 좋아하는 Mr. 최를 내가 차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Mr. 박을 쫓아다니면서 졸라 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10년 지나고 났는데, Mr. 최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더 잘돼가고 있고.
Mr. 박은 남편으로 결혼해서 살아 보니까, 이건 같이 살 사람이 못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분명히 그때는 Mr. 박이라는 이름에 내 마음을 다 줬던 겁니다.
Mr. 박의 존재는 따로 있어요, 결혼하면 안 될 사람이에요.
근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름만 대하고 있으니까, 이름만 대하고 눈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내가 평가하는 것으로 옷을 입혀 놔 버렸으니까.
이게 바로 광고의 원리입니다.
상품을 만들어 놓고는 사람들 마음을 홀딱 뺏기 위해서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된다, 이거 하나면 된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들의 싸움판인, 이 이름의 각축장 안으로, 예수이름을 집어넣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사시면서 온갖 하나님의 능력을 다 드러내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하시고, 그 이름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다른 모~든 이름을 이기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뺏어가는 이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집어넣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예수이름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우린 그걸 이제 이 사람이 믿기 시작했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이름을 받아들인 것이 첫 단계이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온 예수님의 이름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이름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이름들과 붙어가지고 싸웠을 때, 100전 100승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받아들인 것만으로는 믿는 사람이라고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뭐 부모나 전토나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몇 배를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내 이름의 위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자기 방식으로 되풀이 하는 겁니다.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잘 유념해 가지고, 마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게 뭡니까?
예수이름이 있고, 예수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라는 그 글자의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구약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다섯 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사들의 경배를 받고 천사들을 부리는 분이시다, 만유의 주인이시다 등등…
이런 존재에 대한 묘사가 왜 있는 겁니까?

구약성경이 예수님이 오실 거를 미리 알면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세상에 등장하게 될 때에, 너희 마음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이름보다 너희 마음을 온통 예수라는 이름에 다 주어라.
그렇게 줘야 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천사들을 부리는 분이기 때문에, 천사들의 이름에 마음을 빼기지 말아라.
심지어는 모세라는 이름에게도 마음을 빼기지 말고, 다~ 예수님께 드려라.
그리고 천사와 모세만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라이벌이 아니라, 형제자매 부모 집 전토 재산 돈… 이런 게 다,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이름으로서, 예수님의 라이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마음속에 놓고, 마음을 자식이라는 이름에 다 줘버리면, 예수라는 이름이 지는 거예요.
이럴 때 흘러 떠내려간다, 이럽니다.
우리 마음은 예수라는 이름에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다른 이름들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 중에서 에베소교회와 버가모교회에 하신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에베소교회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게 무슨 얘기냐?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내가 마음을 줍니다, 마음이 그쪽으로 가려고 그럴 때 견딘다는 거예요.
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돈이라는 이름에 막~ 마음이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할 때, 계~속 마음이 예수님 이름을 붙잡고 관심을 예수님께만 두는 겁니다, 이게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여간 틈이 있으면 다른 이름들이 치고 들어오거든요, 우리 마음을 빼으려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 이름을 상기하면서 마음을 거기다 두는 겁니다.
유념하라 그랬어요, 유념해서 광고가 잘 되게, 예수님에 대한 광고가 구약성경에 쭉 나왔으니까, 너희가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니까, 그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광고를 잘 보고, 마음을 전부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다 두어라.

버가모교회에 대한 말씀 속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안디바라는 충성된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걸 보고, 야~ 저렇게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이 죽는데 예수 믿어서 무엇하겠나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끝까지 예수이름에 마음을 두고, 이 예수이름에 마음을 두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죽어도 할 수 없다, 이 목숨까지도 마음에서도 버려버리는 겁니다.
육체라는 존재가 내 마음속에 목숨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숨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마음이 버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붙드는 겁니다.
이런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에서 내 마음이 떠내려 가가지고, 자식이라는 이름 속으로 파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지금 떠내려가는 겁니다.
떠내려간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배가 강풍을 만나든지 역풍을 만나 갖고, 원래 목적지를 향한 항로를 이탈해서 표류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이 사탄이 아담 이후에 우리에게 한 것이 뭐냐 하면, 선악을 판단하게 한 건데, 그 선악을 판단했다는 그 내용이,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이 지은 존재들의 이름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집어넣고는 그 존재와는 상관도 없이, 사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 중에서 우리가 마음을 둬도 될 만한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의 이름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으면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고 하는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판단하게끔 유도를 해나갑니다.
돈이라는 이름을 딱 집어넣고는, 그 돈이라는 이름을 광고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돈이 없으면 죽는다, 돈이 있으면 최고다, 돈이 있으면 어디가도 대우 받는다, 아무리 내가 다른 게 부족해도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
이렇게 말을 자꾸 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고 자본주의고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건 간에 다, 이 돈에 대한 마귀의 광고에 완전히 넘어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식도, 우리가 마음을 둬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왜냐? 마음을 둬봤자 자식의 진짜 존재는, 그 자식이라는 이름이 아무리 마음을 둬도, 진짜 자식을 만나지도 못해요.
나와 함께 사는 여자를 아내라 그러잖아요? 그 아내라는 이름을 마음에 두고, 평생을 내가 그 아내라는 이름에 옷을 입히고, 이런 여자다 저런 여자다 해봐야, 평생 진짜 그 아내의 존재를 만나지 못해요, 그 진면목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둬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까 온통 인간들이 다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이름에 다 줘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에 둠으로써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라기서 4장 1절과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기서 교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결국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해 가지고, 마음속에 들어온 이름들에 좋고 나쁨을 다 매겨 가지고, 마음속에 들어온 이름 중에서 좋은 것들이라고 판단해서 거기에 마음을 두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섰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라는 이름 이외에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 이름을 두는 자들이 다 교만한 자들인데, 다 불살라질 거라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그 존재가 가리키는 이름만 가지고 좋다고 마음을 두고 있었으니까, 헛다리 짚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 바로 2절에 뭐라고 이어 나오냐 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 가지면,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 마음만 주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펄쩍펄쩍 뛰듯이 뛰면서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도대체 하나님이름에 마음을 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 마음을 구원을 해야 되겠다.'
다른 이름들에 줌으로써 마지막에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 왜냐하면 그 존재들은 내가 마음을 둬서 기댈만한 존재가 아니었던 이유가, 다 없어질 거거든요, 다 없어질 거니까 거기 기대고 있다가, 마치 트럭에 기대고 있는데 트럭이 쓱 지나가버리면 뒤로 자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다 지나가요.

세월호를 타지 말라, 아주 좋은 경험 정말 귀중한 교훈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질 것들, 세월을 타고 시간을 타는 것들을 절대 마음을 두지 마세요.
그 존재를 가리키는 이름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에 오신 보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를 들어 자식을 대한다.
그 전에는 자식이라는 이름만 두고 내가 평가했어요.
근데 이제는 마음을 자식이라는 이름에 두지 않고 예수님에게 다 뒀더니, 그 마음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끌려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내 자식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자식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내 자식을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자식을 대하는 겁니다.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치료가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자식이라는 이름을 내 마음속에 품고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 이름에 옷을 입히고 그걸 상대했어요.
진짜 자식 존재의 상태와는 아무 상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왜곡돼버리는 거예요.
아내 관계도 마찬가지에요, 돈 관계도 마찬가지에요.

돈이라는 게 무엇이냐를 우리는 진짜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가 자꾸 돈이 있어야만 되고, 돈이 많을수록 좋은 거라고 거짓뿌렁 광고를 했는데, 거기에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많지 않으면 걱정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병난 거예요 병난 거.
돈에 대한 관계가 병이 나버렸어요.
근데 돈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는 예수님, 보이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이름에 마음을 다~ 뒀더니,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돈을 딱 보니, 하나님이 알고 계신 돈에 대한 지식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서, 돈에 대한 태도가 결정이 딱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치료하는 광선으로, 돈이 없는데 송아지처럼 뛰는 거예요.
아~! 즐겁다.
돈이 있으면 어! 겁내는 겁니다, '내가 이 돈 때문에 돈에 빨려 들어가면서, 돈 쓰는 재미에 말려 들어가면, 내 영혼은 망한다.'
돈 벌고 금식기도 하는 겁니다, 돈 벌고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철야기도 하는 게 아니라, 돈 벌고 나서 '이 위험한 걸 나한테 주시다니, 일용할 양식 이외에는 다~ 하나님 뜻대로 써 주시옵소서! 근데 내가 자꾸 딴 걸 사고 싶어 합니다' 하고, 내 뜻대로 쓰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철야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치료하는 광선에 의해서 돈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이름! 큰~ 구원이라 그래요 큰 구원.
예수이름에 대해서 광고하려고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셔 가지고 기적을 막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앉은뱅이를, 예수이름으로 일어나라!
아~ 저걸 보고, 내가 내 마음에 들어온 모든 이름 다 제쳐놓고, 예수이름에만 온 힘을 다 기울여서 마음을 다 드려야 되겠다.
돈 문제가 생겼어요, 돈이라는 이름과 예수이름이 싸웁니다.
이때 마음을 예수 이름에 다~ 드려가지고 예수이름이 돈 이름을 이기게 하고, 자식 이름이 또 부각되면 이때 예수이름에 마음을 다~ 드려가지고, 예수이름이 자식이름을 이기게 하고,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 모~든 마음속에 들어온 이름들이 라이벌로 등장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마음을 다~ 드려가지고, 어떡하든지 예수이름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예수이름에만 드려야 되고, 예수님께 드려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마음을 빼기지 말아야 된다.
이 싸움을 하면서,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 하나님께로 마음이 도달하게 될 때, 우리는 상황이 박해 상황일지라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놀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다, 온전한 관계로 치료가 되는, 치료의 광선 아래서 살게 될 수 있다 이거지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마음속에서 무패행진의 걸음을 오늘도 계속해 나가셔야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름들의 각축장인 옥타곤 같은 내 마음의 싸움판에서, 모든 이름들과 싸워 백전백승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유념하여 예수님께만 드리는 역사가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